

## Chapter 1

# Major International Indexing Database

## 제 1 장 / 주요 국제 색인데이터베이스

우리가 학술지를 국제 색인데이터베이스에 등재시키려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 SCIE, SSCI, A&HCI, SCOPUS 등에 등재가 되면 한국 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 정책에서 국제 학술지로 인정되어 연구비 선정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둘째, 이런 곳에 등재되어야 영향력지표(impact factor)도 산출되고, Hirsch-index 및 SCImago Journal & Country Rank 등의 서지정보 사항이 산출되어 학술지의 유통 정도 및 위치를 알 수 있다.<sup>1,2</sup> 국제 색인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서지정보학 항목을 계산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이 외에 어떤 대학이나 기관에서는 이러한 국제 학술지를 임용, 재임용, 승진 및 포상 자료로 활용한다.

SCIE는 과학 분야, SSCI는 사회과학 분야, A&HCI는 예술인문 분야의 색인 학술지데이터베이스로 모두 Thomson Reuters에서 운영하며 Web of Science라는 이름으로 웹에서 검색 가능하며 유료이다. 2009년 9월자 국가

별 SCIE 등재 학술지 종수는 Fig. 1-1과 같다. 총 7,921종 가운데 우리나라 학술지는 모두 75종으로 국가별 순위는 17위다(Fig. 1-1). SCIE 논문 수로 순위가 12위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학술지는 더 발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 2009년도 12월 25일 자로 우리나라 과학학술지 76종이 등재되어 있다. 이 가운데 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의 회원단체 발행 학술지 22종이 SCIE에 포함되어 있다. 참고로 ‘의사학’은 A&HCI에 등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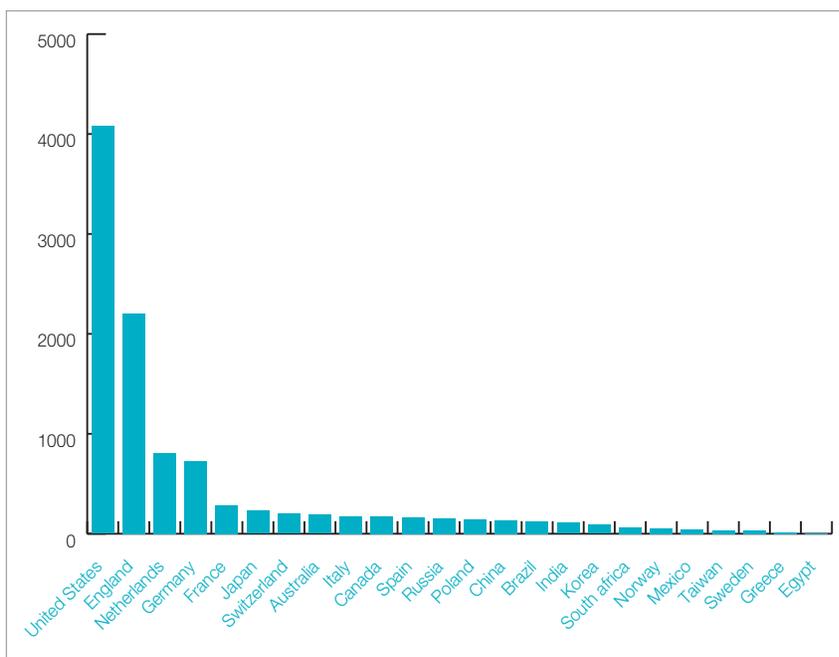


Fig. 1-1. Number of journal covered by SCIE according to country in September, 2009.

SCOPUS는 Elsevier에서 운영하며 과학 전 분야의 학술지를 다룬다. 그러나 이런 데이터베이스도 모두 유료이므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의학 분야 데이터베이스인 PubMed가 가장 중요하다.<sup>3</sup> PubMed는 미국국립의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LM)에서 운영하는 영문 초록 데이터

베이스로, 전 세계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과거 미국의 클린턴 정부 시절에 부통령 고어의 선언에 의하여, 미국 국민의 세금으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의학정보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PubMed가 영문초록만 다룬 데 비하여 PubMed Central (PMC)은 전문(full text)을 다루는 공공접근 정책(public access policy)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이다.<sup>4</sup> 이 PMC는 무료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과 미국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은 반드시 올려야 한다는 점 때문에 그 위상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Google Scholar 다음으로 많이 검색하는 의학 분야 데이터베이스이다.

그 외 Elsevier에서 운영하는 EMBASE는 의학 특히 임상학과 관련된 유료 데이터베이스이며, Thomson Reuters사에서 운영하는 Chemical Abstract, Biological Abstract도 역시 의학과 관계된 유료 데이터베이스이다.

KoreaMed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의편집)에서 운영하는 우리나라 의학학술지의 영문 초록 데이터베이스이다. 비록 국내학술지로 대상이 한정되지만 이미 국제 색인데이터베이스 반열에 들어섰다.<sup>5</sup> KoreaMed에 등재되면 국내 학술지에서 인용하는 정도를 알 수 있고 또한 Thomson Reuters의 Journal Citation Ranking (JCR)과 같은 KoMCI Journal Web에 포함되고, Web of Science와 같은 KoMCI Web을 통하여 개개 논문의 피인용 정도를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은 비록 대상 학술지가 우리나라 의학학술지로 제한이 있으나 매우 유용한 지역 내 학술지 유통 정보를 제공하므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KoreaMed의 자료 전체를 2009년 4월부터는 WorldWideScience.org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다.<sup>6</sup>

이 외에도 다양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나 여기에서 언급한 정도가 중요하다. 이 중에 Web of Science, PubMed, SCOPUS, KoreaMed, KoreaMed Synapse 등재에 대하여 제 2장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제 4 장에서는 학

술지의 구성요소를 Front matter, Body, Back matter 순으로 정리하여 학술지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REFERENCES

1. Hirsch JE. An index to quantify an individual's scientific research output. Proc Natl Acad Sci U S A 2005;102:16569-72.
2. SCImago Journal & Country Rank [Internet]. Granada: SCImago Research Group; c2007-2009 [cited 2009 May 4]. Available from: <http://www.scimagojr.com/>.
3. PubMed [Internet]. Bethesda: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2010 [cited 2010 Apr 19]. Available from: <http://pubmed.org/>.
4. PubMed Central [Internet]. Bethesda: U.S.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2010 [cited 2010 Apr 19]. Available from: <http://pubmedcentral.org/>.
5. KoreaMed [Internet]. Seoul: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2010 [cited 2010 Apr 19]. Available from: <http://koreamed.org/>.
6. WorldWideScience.org [Internet]. Oak Ridge: U.S. Department of Energy's Office of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cited 2010 Apr 19]. Available from: <http://worldwidescience.org/>.